

축제의 본질 : 견디어낸 자들의 축복

“자연의 섭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존재에 대한 신성함과 동시에 시린 생존역학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.”

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설레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다. 물 오른 아가씨 마음이기도 하고, 겨울을 너머 밖으로 뛰쳐나온 아이들의 마음이기도 하다. 담벼락 틈새를 비집고 나온 무명초 여린 잎에서부터 지천에 널려있는 개나리, 진달래 그리고 나뭇잎 애기순 까지... 온 천지가 휘황찬란한 생명 축제의 장(場)이다.

축제에 초대받은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혹독한 겨울에 맞서 싸워왔으며, 버텼다는 사실에 더할 수 없는 경외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. 동토(冬土)에 뿌리만 박아 둔 채로 한겨울을 지낸 수많은 무명초들과, 마지막 한 잎까지 떨구고 검은 사체로 온갖 추위와 바람을 올 곳이 견디어낸 거목들까지. 생명축제는 나목(裸木)으로 한 겨울을 직면하고 견디어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대 자연의 '축복의 시간' 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.

자연의 섭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존재에 대한 신성함과 동시에 시린 생존역학을 배울 수 있다.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나목(裸木)으로 직면할 수 있는 힘(Naked Strength)이 있는가? 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.



James Roh

“나는 이 세계의 축제에 초대받았고 그래서 내 생명은 축복받았습니다.

내 눈은 보았고 내 귀는 들었습니다.

이 향연에서 내 맡은 일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었고

또 나는 내 힘껏 연주했습니다.

이제 보십시오. 내가 들어가서 당신의 얼굴을 보고
당신에게 침묵의 인사를 드릴 때가 마침내 오지 않았습니까?”

- 타고르(R. Tagore)

We Serve The Global Success !

Written by C.E.O James Roh(노상충)

“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, 모든 삶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.” _ 프리드리히 니체